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사순절 제5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1. 다 찬양하라	다함께
----------------	------------------	-----

♣ 공동기도	다함께
--------------	-----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동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소리 없이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다가오셔서 굳어진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십니다. 우리 마음의 바다 위로 걸어오시며 풍랑에 시달리는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든든합니다. 하지만 미루기 좋아하는 우리는 하나님조차 뒷자리로 밀어놓을 때가 많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지금 당장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욕심의 손길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주님을 향해 길 떠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분열의 높은 담을 허물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사59:21	인도자
----------------	--------------	-----

♣ 교 독 문	6. 시편 15편	다함께
---------------	-----------------	-----

♣ 영 광 송	3. 이 천지간 만물들이	다함께
---------------	---------------------	-----

대표기도	I. 조운숙 선생 II. 한완식 장로
------------	----------------------

응 답 송	성가대
-------------	-----

찬 송	439. 만세반석 열린 곳에	다함께
-----------	-----------------------	-----

성경봉독	I. 마26:36-46	인도자
------------	--------------------	-----

II. 욥35:1-8	김근종 권사
-------------------	--------

찬 양	성가대
-----------	-----

말 씬	I. 고요를 마련하라	김재흥 목사
-----------	-------------------	--------

II. 엘리후의 하나님을 넘어	김기석 목사
------------------------	--------

거듭의 기도	다함께
--------------	-----

헌신의 찬송 362.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약한 이들의 힘이 되어 주고, 비틀거리는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십시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의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십시오.

다함께 : 아멘, 주님. 그리 하겠습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일을 함께 하자고 초대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곧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활동	에베소서 강해(1)
형제 자매의 친교, 아름답도다!	기도 : 표명화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장영숙 전도사 김기석 목사	박인혁 선생 구성실 장로	인도자 조항범 집사

3월	영접위원	한완식 박창운 고사일 유영남 박홍재 이영란
	헌금위원	김철수 김정길 김인걸 조병주 배상순 장혜숙

우리 속에 있는 떨켜

● 북한산 구기매표소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버들치교가 나옵니다. 계곡의 좌우편 물웅덩이에 버들치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듯합니다. 그곳을 지날 때면 늘 멈추어 서서 버들치들의 유행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면 물웅덩이가 꼭꼭 얼어붙어 버들치의 안부가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칩이 지난 계절은 어쩔 수 없는지, 눈석임물이 조금씩 흐르더니 마침내 물웅덩이 한 복판의 얼음이 녹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서니 버들치 떼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잃어 버렸던 가족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서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다리 간에 기대선 채 리포터가 되어 현장상황을 중계했습니다. “버들치교 위에서 바라본 오늘의 세계, 얼음장 밑에서도 생명은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김교신 선생의 글 ‘조와弔蛙’가 떠올랐습니다. 다음은 그 글의 일부입니다.

“봄비 쏟아지는 날 새벽, 이 바위틈에 얼음 덩어리도 드디어 풀리는 날이 왔다. 오래간만에 친구 개구리들의 안부를 살피고자 담 속을 구푸려 찾았더니 오호라, 개구리의 시체 두세 마리 담 꼬리에 똥똥 떠 있지 않은가! 짐작컨대 지난 겨울의 비상한 혹한에 작은 담수의 밑바닥까지 얼어서 이 참사가 생긴 모양이다. 예년에는 얼지 않았던 데까지 얼어붙은 까닭인 듯, 동사한 개구리 시체를 모아 매장하여 주고 보니 담 속에 아직 두 마리 기어다닌다. 아, 전멸은 면했나보다!”

<성서조선> 1942년 3월 호에 올린 이 글에 대해 일제는 민족의 부활을 암시한 것이라 하여, 잡지를 폐간하고 잡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구속했습니다. 역사의 겨울은 아직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막으려해도 오는 봄을 막을 수 있나요? 사람이 제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계절을 막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절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요? 겨울의 혹독한 추위도, 켜켜이 쌓이는 얼음의 중량도 버들치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가혹한 생존의 조건을 견디었기에 버들치의 유행은 더욱 대견해 보였습니다.

● 찢겨진 나뭇가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시려웁니다.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찢겨진 가지, 미끄러지는 사람들의 중량을 온 몸으로 받쳐주다가 찢겨진 가지... 어느 것이 되었던 하얀 속살을 드러낸 채 차가운 바람을 맞고 있는 게 영 안타깝습니다. 장갑 낀 손으로 찢겨진 가지를 감싸 보다가 떨켜에 눈이 갔습니다. 동행에게 떨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겨울에 대비하기 위해 식물은 구조조정을 서두른다는 이야기며, 식물은 줄기와 잎 사이에 투명한 막, 곧 떨켜를 만들어 영양과 물이 잎으로 공급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이야기며, 수분을 공급받지 못한 나뭇잎은 단풍처럼 물들거나 낙엽이 되어 마침내 땅에 떨어진다는 이야기 끝에, ‘방하착放下着’이라는 말도 곁들입니다. 산다는 게 무거워진 제 몸을 하나씩 내려놓아 가벼워진 몸으로 마침내 근원에 이르는 게 아니냐며 제법 무게를 잡고 말해봅니다.

때로는 우리도 삶의 구조조정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파탄, 질병, 실패, 실연, 이별..... 그것은 때로는 가혹한 시련입니다. 우리는 익숙치는 않지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과 작별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힘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곧잘 해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 속에도 은총처럼 떨켜가 주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떨켜는 나뭇잎이 떨어진 자리에 남는 나무줄기의 상처를 재빠르게 아물게 하는 보호제 역할도 한다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동시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스승이시기도 합니다. 스승은 자기를 이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는 없는 것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내 것이니 네 것이니 하는 분별심에서 비롯되는 사사로움이 없었으니 ‘사사로이 할 사私’가 없었습니다. 둘째, 누군가를 닮기 위해 아무도 모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으니 ‘비슷 사似’가 없으셨습니다. 셋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 거짓이 없으셨으니 ‘간사할 사邪’가 없으셨습니다. 넷째, 늘 담백하고 소박하게 살고 허례허식이 없었으니 ‘사치 사奢’가 없으셨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기에 죽음(死)을 넘으셨고, 죽음을 넘으셨기에 스승(師)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을 자꾸 돌아보며 자기의 생의 자리와 태도를 예수라는 거울 앞에 비춰볼 때 우리는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석)

놓아버리는 연습

어느 날 산책길에서 만난 작은 꽃 한 송이가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무도 오지 않더라도 아무도 봐주지 않더라도 우선 자신에게 먼저 최선을 다해서 꽃 피우는 것이 나의 할 일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것이 진정한 나를 만나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 나도 나만의 향기를 뽐는 노란 꽃을 피워내자. 내 색깔을 더 선명하게 하고, 나를 나답게, 보다 노랗게 하자. 그래서 향기가 번지면 벌이 꽃을 찾듯이, 지치고 피곤한 이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것이 곧 하늘나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산책하고 명상하면서 나를 나답게 하고 나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답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꽃은 스스로 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피는 것이 아니고, 또한 자리를 선택해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연이 닿은 곳에 떨어진 씨가 때가 되면 싹이 트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워내듯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바라는 것, 그 마음 자체를 놓아 버리는 것이, 진정한 나를 만나는 길이 아닐까. 어떤 결과를 상정하고 그것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한 것이 진정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도 나는 나를 나답게 하기 위해, 놓아버리는 연습을 하려고 산책길에 오른다.

—조화순, 『낮추고 사는 즐거움』 중에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윤정덕 구성실 조병무 송양진 김중수 이순정 이광용
 형인순 조문규 진정숙 정복순 한선희 박애순 백요현 이인웅 백승민
 김윤수 박옥경 윤수진 이정규 이인섭 윤미경 김지호 김지윤 김훈동
 전영순 노용래 차혜심 김재흥 최희영 영혜영 장영숙 문홍일 무명1

월정헌금:

하현철 최성애 장재영 김재영 이지훈 서재홍 박현우 정미경 윤성중
 김윤정 표명화 김홍기 문금석 김창원 정지은 김미순 전영규 김경수
 김 극 김종문 지명주 송의섭 김정섭 노미향 김창경 이증자

감사헌금:

김기석 윤석철 장혜숙 윤여준 한상익 정영선 박창운 허정윤 김중수
 이순정 장준호 김용길 최영혜 이인섭 무명4

생일감사헌금:

김준호 박효선 정완수 김필순 이지훈 김지윤

구도헌금: 김기석 김재흥 김철수 문복순 조항범 무명1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영남	차혜심	엄순임	차혜심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김윤수	김미순
안디옥	임정자	곽권희	이춘희	정진경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박경선	곽혜자
갈릴리	조병주	박애순	박애순	박옥순
베다니	임창선	박홍재	백요현	문복순
시온	박효선	허정윤	이인섭	송의섭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권미정	최희정
에베소	이순정	장혜숙	장혜숙	장혜숙
빌립보	구성실	박현우	박현우	이정은
가버나움	구명자	안홍숙	정현주	이명옥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김시영	정옥영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김혜권	김수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이영란	박미영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박혜경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예배 후 제1.3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2. **동호회** : 마침내 시작입니다. 각자 신청한 동호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요. 동호회의 문은 활짝 열려있습니다. 누구든 환영합니다.
3. **수요집회** : 16일부터 김기석 목사와 '에베소서' 여행을 떠납니다.
4. **성서연구반** : 화요일(바울 서신)과 목요일(복음서)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재능보다는 성실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5. **아름다운 원로 모임** : 3월 모임은 고난주간을 피해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6. **심방** : 봄철 대심방을 실시합니다.
 금요일 - 나사렛
7. **세례신청** : 부활절에 세례 받고 입교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고 예비교육에 동참하십시오.
8. **신앙실천** :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주님을 따르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냅니다. 욕망을 절제해야 영혼의 힘이 생깁니다.

* 식당 봉사 : 나사렛 속 / 김재홍 김지호

* 헌화 : 방문성 장로 (어머니 이부방 권사 추모 1주기)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